

韓人系 作家의 萬葉集에 미친 影響

- 山上憶良을 중심으로 -

李 妍 淑*

차 례

I. 序 論	4. 憶良이 「萬葉集」과 일본 문학에 미친 영향
II. 本 論	III. 結 論
1. 山上憶良의 1생	
2. 山上憶良의 出自에 관한 考 察	
3. 작품세계를 통하여 본 憶良의 한국적 성격	

I. 序 論

우리 나라는 일본과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있는 까닭에 고대로부터 일본과 끊임없는 정치적인 관계를 지니면서 우리의 선진 문물을 일본에 전래하여 주었다. 이러한 정치적 문화적 교류와 함께 문학적 영향관계도 많았으리라는 지적은 자주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우리 문학 자료가 영성한 까닭에 우리 문학이 일본 문학에 미친 영향 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료의 영성함을 극복하고 우리 문학의 영향관계를 밝힐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가능하리라 본다. 그 중의 하나

* 동의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가 일본의 상대 시가집인 「萬葉集」 작가 중에서, 한국계 작가들을 밝혀내고 그들의 작품을 분석하고 여타의 다른 일본 작가들의 작품과 비교함으로써 그 특성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왜냐하면 星野五彦도 언급하고 있듯이 “귀화인의 도래의 본격적인 시기(일본서기에 의하면 7세기 중엽에서 終葉까지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보이는 것)와 그들이 萬葉集에 노래한 시기(시대구분의 제4기의 하한을 750년으로 해도 渡來부터 1세기 전후밖에 되지 않는다.)가 근접하고 있는 점”¹⁾으로 보아 그 영향관계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백제계 도래인으로 추정되는 「萬葉集」 제3기의 대표적인 作家 山上憶良을 중심으로 하여 그의 출자에 관한 기존의 학설을 검토한 뒤 그의 작품 세계의 특성을 밝히고 그러한 특성이 한국계 귀화인이라는 데서 연유한 것이며, 또 그러한 문학적 성격이 일본 「萬葉集」과 그 이후의 문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우리 상대문학의 자료의 부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한일의 비교문학을 통하여 우리문학의 특성이 명확히 규명될 수 있을 것이다.

Ⅱ. 本 論

1. 山上憶良의 일생

먼저 山上憶良의 일생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山上憶良은 「萬葉集」 第三期의 歌人으로 天平五年(733)의 作 ‘沈痾自哀文’에 “是時年七十有四”라고 되어 있으므로 齊明六年(660) 생이 된다. 사망한 해는 아마도 天平五年(733)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해를 기준으로 「萬葉集」 제3기를 구분할 정도로 山上憶良이 「萬葉集」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중요하다. 그의 주요한 약력을 보면 大寶元年(701) 遣唐少錄에 임명되었으며 慶雲4년(707)에 귀국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 이 해 從七位上, 和銅3,4년(710, 711) 正六位下, 和銅7년(714, 55세) 正五位下, 2년 후인 靈龜2년(716)에 4

1) 星野五彦, 萬葉集に於ける歸化人 (國學院雜誌, 1973. 10), p. 29.

월 伯耆守에 임명되어 伯耆國에 부임하였으며, 養老4년(720)에 귀경한 듯하다. 養老5년(721) 정월에 東宮侍講者의 한 사람으로 지명되었고, 神龜3년(726)에 筑前守에 취임하였다. 天平 4년(732)경 筑前守 임기를 끝내고 歸京하고, 同 5년(733) 여름 이후 74세로 사망한 듯하다.

「萬葉集」에 수록된 그의 작품을 보면 작자문제의 여지가 있기는 하나 그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것까지 포함하여 망라하면 다음과 같다.

長歌 : 11首 (권 제5의 794, 800, 802, 804, 813, 886, 892, 894, 897, 904, 권 제8의 1520)

短歌 : 65首 (권 제1의 63, 권 제2의 145, 권 제3의 337, 권 제5의 795-799, 801, 803, 805, 814, 818, 868-870, 874-882, 887-891, 893, 895, 896, 898-903, 905, 906, 권 제6의 978, 권 제8의 1518, 1519, 1921-1929, 1537, 권 제9의 1716, 권 제16의 3860-3869)

旋頭歌 : 1首 (권 제8의 1538)

漢詩 : 2(권 제5의 793後, 897前)

作文 : 1(권 제5의 896後)

漢文에 의한 歌序와 詩序 : 9(권 제5의 793後의 詩, 800, 802, 804, 813, 817, 868, 886, 897前의 詩)²⁾

위에서 보듯이 그의 작품은 대부분이 권 제5에 수록되어 있으며 그의 작품 76수 중 70수가 그가 67세이던 해인 神龜3년(726)에 筑前守가 되어 筑紫에 취임한 이후 그의 만년에 지어졌는데 그것도 특이한 점이라 하겠다.

2. 山上憶良의 出自에 관한 제 학설

이처럼 「萬葉集」 권 제5에 집중적으로 작품이 수록되어 있고 작품 세계도 여타의 작가에 비해 그 특성이 두드러지는 山上憶良의 출자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크게 두 가지 설이 대립되어 있다.

하나는 山上憶良이 백제에서 도래한 한인계 작가라는 설이 그것이며 다른 하나는 山上憶良은 한인계가 아니라 일본인이라는 것이다.

먼저 山上憶良이 백제 멸망후 백제로부터 일본에 도래한 한인계라는 설부터

2) 이것은 井村哲夫의 '山上憶良', 國文學解釋と教材の研究(萬葉集を讀むための研究事典) 第30卷 13號(學燈社, 1985.11), p.62를 요약한 것이다.

살펴 보기로 한다. 土屋文明은 憶良을 백제로부터의 망명인 憶禮福留·憶賴子老와 관계 있다고 보아,

天智天皇 2년(663년) 일본에 망명한 백제인에 憶禮福留가 있다. 후에 大宰府의 大野城 基城構築 일에 종사하고 병법에도 능통하였다는 이유로 大山下라고 하는, 대개 그 당시의 위계에서는 中정도의 위계를 부여받고 있다. 淳仁天皇의 天平寶字5년(761년) 憶賴子老라고 하는 자가 石野連이라고 하는 姓을 받고 있는 것을 보면 자손이 계속하여 일본에 살았으며 상당히 번영했다고 생각된다. 憶禮, 憶賴는 글자만 다를 뿐 어느 쪽이나 オクラ라고 읽어 야만 할 것이다. 憶良의 이름은 이 憶賴와 관계있는 것이 틀림없다고 나는 확신한다.³⁾

고 하였다. 中西 進도 그의 논문에서

憶良은 귀화인인가. 新撰姓氏錄에는 右京皇別下에 「山上朝臣 同祖, 日本紀合」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山上臣船主가 朝臣을 받은 일은 續紀가 명기한다. 大伴氏族과 운명을 함께하는 船主를 憶良의 자식이라고 추정한다면 憶良이 귀화인인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中略)天智紀 2년 9월 24일에 보이는 백제로부터의 망명 문인 憶禮福留의 자손 憶賴子老가 石野連을 받은 것은 續紀에도 姓氏錄左京諸蕃下에도 보이지만 天武紀朱鳥元年 5월 9일조에 「侍醫百濟人憶仁」의 이름이 있다. 혹은 憶良은 그들과 동족으로서 憶仁의 아들은 아닐까. 禮·仁·良 이라는 이름을 떨쳐버릴 수 없다. 이러한 好字를 부자·형제가 나누어 가지는 것은 귀화족에게 자주 보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다면 한다면 朱鳥元年의 父의 사망은 憶良 26세 때이며 연령에도 모순은 없다. 무척 단정짓기 어렵지만 가령 憶良이 귀화인이라고 한다고 해도 위에서 말한 제2세이며 近江朝 亡命 文人의 아들로서 일본 문화사에 있어서의 전형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다.⁴⁾

라고 하여 百濟人 憶仁의 아들로 귀화인 2세라고 하였다. 이처럼 山上憶良을 백제계 귀화인이라고 추정하는 설들은 그 근거로 憶良이라는 이름에서 백제계 귀화인 憶禮福留, 혹은 侍醫百濟人憶仁과 관련이 있다는 점, 그의 한문 소양이 뛰어 났다는 점, 그의 작품을 분석하여 작품 세계가 귀화인적이라는⁵⁾ 점을 지

3) 土屋文明, 「山上憶良」, 文藝讀本 万葉集 (河出書房新社, 1981), p.80.

4) 中西 進, 「相剋と迷妄—山上憶良をめぐって」, 万葉史の研究 (櫻楓社, 1968), p.524.

5) 高木市之助의 논문 「万葉集の本質」[文藝讀本 万葉集 (河出書房新社, 1981), p.18]

적하고 있다.

한편 이같은 山上憶良의 백제계 귀화인 설을 비판하는 자들은 佐伯有清과 青木和夫가 대표적인데 佐伯有清은 比護隆界가 伯耆守가 된 것은 憶良 전이 김상원이고, 憶良 뒤가 高丘河內이므로 귀화인 1세라고 본 것과, 村山出이 777년(寶龜8)경 通事인 山於野上 이전의 통사는 鞍作福利·大津造廣人과 같은 도래인계 씨족이고 일본인이 등장하는 것은 平安朝에 들어서라고 생각되므로 憶良을 도래계 씨족이라고 본 것을 비판하여 伯耆守에는 일본인이 귀화인의 사이에 있으므로 憶良은 귀화인이 아니라고 하였다. 또 通事의 경우도 보면 일본인도 들어 있었으므로 通事들의 출자로 憶良을 도래인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憶良의 가계인 山上氏は 春日·柿本·櫛井·大宅·井代 등의 諸氏와 함께 후의 添上郡에 본거를 둔 씨족이었고, 中西氏의 동족 집단의 분류를 따르면 タガネツキ세에 속하고 있었으므로 山上憶良은 天智朝의 도래인이 아니었던 것이라고 결론지었다.⁶⁾

青木和夫는 渡部和雄과 中西進이 憶良이라고 하는 이름에 논거를 주로 두고 있는 것을 비판하여 古寫本の訓이 奈良시대의 발음의 略字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憶良을 “おら”, 혹은 “おらぶ”라는 일본어를 표기했다고 보았고 憶良과 憶良의 글자의 차이를 문제삼았으며, 설령 오쿠라라고 읽힌다 해도 オク+ラ 외에 オ+クラ로도 읽을 수 있는 일본어라고 하였으며 만약 憶良이 중국풍의 嘉名이었다고 하다면 그의 본명은 따로 있고 예를 들면 遣唐使로서 출발할 때에 스스로 붙인 호일지도 모르겠으며 憶良과 관련을 짓고 있는 億仁이 이름만인가, 姓+名인가, 명확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들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귀화계인에게는 臣을 내려주지 않은 것 등을 들고 있다.⁷⁾ 이에 대하여는 中西進이 상세하게 다루고 있으므로⁸⁾ 생략하기로 하고 양설을 비교하여 보기로 한다. 佐伯有清이 말하는 伯耆守와 通事는 일본인도 있지만 귀화인이 많으므로 憶良을 일본인이라고 볼 수만은 없는 것이다. 青木和夫가 말하는 古寫本

과 久松潛一の 논문 ‘山上憶良は歸化人か’[文藝讀本 萬葉集 (河出書房新社, 1981), p.62] 등을 들 수 있다.

- 6) 佐伯有清, ‘憶良は天智朝の渡來人か’, 國文學解釋と教材の研究 (記紀萬葉の謎) 第25卷 14號(學燈社, 1980.11). pp. 117-120.
- 7) 青木和夫, 憶良歸化人說批判, 萬葉集研究 第二輯(塙書房, 1973), pp. 267-270.
- 8) 中西進, ‘憶良渡來人論 補遺’, 上代文學 第36號 (1975.7).

의 혼을 믿을 수 없다는 것도 「萬葉集」의 수많은 작가 중에 하필 憶良의 이름만 잘못 읽었을 이유가 있을까 하는 점이다. 학자들간에 「오쿠라」로 읽는 것에 거의 異見이 없는 작가를 구태여 일본식 이름을 만들어 붙일 이유가 있을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풍이라면 遣唐使로 출발할 때에 중국식 호를 만든 것일 것이고 일본식 이름은 따로 있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憶良이 귀국하여 만년에 주로 작품 활동을 하면서 일본식 이름 대신에 중국식 호를 사용했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고대 한국의 남성들의 이름에는 물론 고유한 한국식 이름도 있지만 한자식의 이름 중에는 郎과 良이 많이 붙는 것을 생각하면 憶良은 한국계일 가능성이 아주 많은 것이다.

3. 작품세계를 통하여 본 憶良의 한국적 성격

憶良의 작품의 소재나 성격이 「萬葉集」의 다른 작가들에 비해 매우 특이하다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것은 高木市之助가

貧窮問答歌를 문학적으로 고찰하여 보면 이 노래에는 「나」라고 칭하는 1인칭 주인공과 「나보다도 가난한 자」라 칭하는 2인칭적인 또 한사람의 주인공과의 대비에 의해 가난을 초상화적으로 묘사하고 또 反歌 1수를 더하여 이 2개의 초상화를 말하자면 변증법적으로 통일하는 것에 의해 그의 문학적 구상력이 달성되고 있는 것이나 내가 처음 10수 년의 한국생활에 들어갔을 때 무엇보다도 인상깊었던 것은 이 나라에 있어서의 서민들의 특유한 것 「다 찌그러져가는 집안에」라는 스타일이었다. 그것은 물론 특히 가난하기 때문에 그러하겠지만 일본의 서민의 생활과는 전연 형태가 다른 반도 독특한 스타일로 나에게 憶良의 「다 찌그러져가는 집안에」라는 조형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여기서 그 이유를 풍토적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는 대신에 내가 구태여 憶良의 이 시적 표현에 이끌리어 연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憶良이 일본에 망명한 백제 멸망의 세기에 그, 즉 問者들과 함께 近江의 甲賀 지방에 정주한 농민들 즉 答者들의 가난한 주거가 이 시인 즉 問者에게 표현된 시적 造型이 「다 찌그러져가는 집안에」이었다고 한다면 이 「다 찌그러져가는 집안에」라는 표현은 역시 어떤 반도다운 異型의 이미지로 우리를 의아하게 한 이유였던 것이며 그것이 문학론적으로 귀화인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⁹⁾

9) 高木市之助, 萬葉集の本質, 文藝讀本 萬葉集 (河出書房新社, 1981), pp.17-18.

라고 한 데서도 단적으로 알 수 있듯이 憶良의 作品에는 「萬葉集」 작가 중에서 이질적인 요소가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憶良의 作品의 소재와 그 성격들을 하나씩 분석하여 봄으로써 憶良의 이러한 성격이 그가 귀화인계임에서 비롯되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3-1. 憶良과 죽음에 대한 인식

憶良은 그의 作品 속에서 죽음을 노래한 것이 많다. 旅人의 아내의 죽음을 애도한 <日本挽歌>, 大伴熊凝의 죽음을 애도한 作品 <敬和爲熊凝述其志歌六首并序> (5. 886-891), 또 筑前志賀의 海人の 비극을 노래한 <筑前國志賀白水郎歌十首>(16. 3860-3869), 他人의 아이 古日의 죽음을 슬퍼한 <戀男子名古日歌一首并短歌>(5. 904-906) 등과 같이 타인의 죽음을 슬퍼한 作品도 있던 자신의 만년에 병들어 신음하면서 죽음에 직면하여 병과 죽음을 소재로 한 作品으로는 <沉痾自哀文> <悲嘆俗道假合卽難易去難留詩一首并序> 등이 있다. 주를 제외한 본문만 총 660여 자에 달하는 <沉痾自哀文>의 긴 한문을 보면 뒷 부분에서 각 문헌의, 죽음과 관련된 부분을 인용하면서 병과 죽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나가고 있다. 일본의 「萬葉集」을 보면 죽음을 노래한 作品들은 挽歌의 部立에 들어 있어 그 장르 체계에 대한 인식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만큼 「萬葉集」의 다른 작가들도 죽음을 노래한 作品을 많이 짓고 있다. 그런데 그 성격들을 보면 憶良의 作品과는 무척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즉 대부분의 挽歌의 내용을 보면 죽음 그 자체를 노래했다기 보다는 死別을 한탄하는 정도의 차원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에 비해 憶良은 남겨진 자들의, 死別에 대한 단순한 한탄에서 벗어나 죽음에 보다 근접하여 죽음 그 자체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의 和歌 作品 <敬和爲熊凝述其志歌六首并序> (886-891)와 <老身重病經年辛苦及思兒等歌七首>(897-903)에서는 다음의 作品

- 家にありて 母が取り見は 慰むる 心はあらし 死なば死ぬとも(889)
- …我が身の上に 病をと 加へてあれば 晝はも 歎かひ暮らし 夜はも 思づき明かし 年長く 病みし渡れば 月かさね 憂ひさまよひ ことことは 死ななと思へど さばへなす 騒く子等を うつてては 死は知らず 見つければ 心は燃えぬ かにかくに 思ひわづらひ ねのみし泣かゆ(권 제5

897)

에서 보듯이 '死'를 직접 和歌 작품 속에 사용을 하되 그것도 한 작품 속에 2번 씩이나 사용하고 있는 것은 주목된다고 하겠다. 「万葉集」에서 인간의 죽음을 나타내는 단어 '死'가 사용되 경우는 93용례가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 62에는 挽歌가 아니라 남녀간의 연정관계 노래를 수록한 相聞에 보이고 있으며 그에 비해 정작 현실적인 죽음을 노래한 挽歌에는 오히려 '死'라는 용어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은 주목된다고 하겠다.

相聞歌에 사용된 '死'는 青木生子가 “「死」는 가끔 「命」과 「生」이라는 단어를 동반하여, 진실 생명에 관계될 정도로 연애에 고뇌하고 있는 것을 표명하고 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死」는 관념적 추상적 세계에서 강조되는 성격의 것”¹⁰⁾이라고 논급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실제적인 죽음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상사의 감정을 강조하는 하나의 상투적인 표현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작 죽음을 노래한 挽歌에서는 '死'를 사용하기를 꺼리는 것은 市村 宏가 논급하고 있는 것처럼 죽음도 병도 더러운 것으로서 싫어하고 꺼리는 민족성¹¹⁾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처럼 일본인들이 직면하기를 싫어한 죽음 자체를 憶良이 노래하고 또 일본인들이 사용하기를 꺼려한 '死'라는 용어를 그의 작품에서 사용한 것은 무엇때문일까? 이것은 아마도 그가 백제로부터 일본에 건너간 귀화계이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한국인들은 죽음에 대하여 부정하다거나 금기시하는 생각이 희박하였고, 사후에는 낙원으로 회귀한다는 생각조차 가지고 있었음이 고대 한국의 葬俗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문학 작품 속에서도 죽음 그 자체를 거리감 없이 진지하게 생각하고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사료된다. 星野五彦가 「万葉集」의 귀화계 작가로 추정되는 자를 통계를 내어 唐系와 비교하여 “죽은 자를 보고 그 자에 대신하여(代詠) 노래하기도 하고, 그것을 슬퍼하기도 한 것이 백제계에는 많은데 당계에는 없다는 것¹²⁾을 보아도 한국인들의 죽음에 대한 인식이 중국·일본과는 달랐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민족성이 문학작품 속에도

10) 青木生子, '山上憶良の歌における「死」', 万葉挽歌論(塙書房, 1984), p.145.

11) 市村 宏, '万葉集と佛教', 万葉集新論(櫻楓社, 1969), p.360.

12) 星野五彦, 萬葉集に於ける歸化人, 國學院雜誌(國學院大學, 1973. 10) p. 33.

반영된 것이라 생각된다.

3-2. 憶良과 불교

일본의 「萬葉集」을 보면 불교적인 색채를 띤 작품이, 거의 같은 시기의 신라의 향가와 대비하여 볼 때 무척 적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양국이 똑같이 불교의 융성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시가 작품 속에 반영된 불교문화의 영향은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는 승려의 작품이나, 불교적인 것을 소재로 하였다 하더라도 相聞의인 내용이나 골격로까지 치닫고 있음에 비해 향가의 경우는 불교사상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음을 대비하여 이러한 차이를 양국인의 미적 감각, 죽음에 대한 인식, 내세관 등으로 분석하여 논한 바¹³⁾ 있다. 그런데 憶良의 작품을 보면 주로 한문 서문에는 「萬葉集」 중에서도 드물게 불교경전의 빈번한 인용과 불교사상의 영향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 보기로 한다.

- 蓋聞 四生起滅方夢皆空 三界漂流 喻環不息 所以維摩大士 在乎方丈 有懷染疾之患 釋迦能仁 坐於雙林 無免泥洹之苦 故知 二聖至極 不能拂力負之 尋至 三千世界 雖能逃黑闇之搜來 二鼠競走 而度目之鳥且飛 四虫也爭侵 (後略)

愛河波浪已先滅

苦海煩惱亦無結

從來厭離此穢土

本願託生彼淨刹(日本挽歌의 序와 漢詩文)

- 釋迦如來 金口正說 等思衆生 如羅睺羅 又說 愛無過子 至極大聖 尙有愛子之心 況乎世間蒼生 雖不愛子乎 (思子等歌一首并序)
- 易集難排 八大辛苦 (哀世間難住歌一首并序)
- (前略) 況乎我從胎生迄于今日 自有修善之志 曾無作惡之心(謂聞諸惡莫作 諸善奉行之教也) 所以禮拜三寶(後略) (病自哀文)
- 竊以 釋慈之示教(謂釋氏慈氏) 先開三歸(謂歸依佛法僧) 五戒而化法界(謂一不煞 生二不偷盜 三不邪婬 四不妄語 五不飲酒也)(中略) 所以維摩大士 疾玉體于方丈 釋迦能仁 掩金容乎雙樹 內教曰不欲黑闇之後來 莫入德天之先室(德天者生也 黑闇者死也) 故知 生必有死 死若不欲 不如不生 況乎縱覺

13) 李妍淑, 鄉歌와 萬葉集 佛教歌의 比較研究, 韓國文學論叢 19집(韓國文學會, 1996. 12).

始終之恒數 何慮存亡之大期者也
(悲嘆俗道假合即難易去難留詩一首并序).

이 작품들을 보면 여러 불교 경전을 인용하여 자신의 논리를 합리화시키고 있으며 그 다음에 이러한 생각 하에 노래를 짓고 있는 것이다.

憶良의 이런 작품들에 대한 연구는 주로 위에 인용된 내용들이 어디에 典據를 두고 있는가¹⁴⁾, 또는 憶良의 작품 속에 불교성이 있는가 없는가¹⁵⁾에 주로 초점이 주어져 논의되었다. 그리하여 이러한 문제는 憶良이 유학사상이 중심인가 불교사상이 중심인가를 다루는 문제로 이어졌다. 中西進은 憶良을 귀화인계로 보면서도 정작 그의 사상을 논함에 있어서는 “유학자인 憶良은 무엇 때문에 불교를 취했는가? 그에게 주어진 한학이 극히 자연스럽게 三教를 병존케 했다고 하는 극히 단순한 원인에 기인한다. 이것은 유불이 종교이기도 학문이기도 했다는 사실이며 신앙과 사색이 미분화되어 있었다는 것이다.”¹⁶⁾고 하여 불교에 대한 관심을 단순한 漢學 능력에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 한학 능력이 뛰어났다고 하여 그의 박식을 선전하기 위해 관심이 없는 불교 경전을 읽을 필요도 없을 것이며 그와 관련된 내용을 애써 나열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그가 건당사로 중국에 갔다가 돌아올 때 많은 불교경전을 가져왔다고 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이것은 불교에 관한 그의 높은 관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가 작품들의 한문 서문에 많은 불교 경전을 원용하고 있음에 비해 그의 작품에는 井村哲夫가 지적하고 있듯이 憶良이 <思子等歌>의 서문에서 「大盤涅槃經」을 인용하고는 있지만 전후 내용을 보면 논리의 냉정함이 아니라 감정에 영향받아 바탕이 된 영탄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이것은 法愛와 欲愛의 차이점을 무시하였다¹⁷⁾고 하더라도, 또 高木市之助가 지적하듯이 <哀世間

14) 小島憲之, 上代日本文學と中國文學(上, 中, 下) (塙書房, 1986, 1980, 1980), 中西進, 「憶良と佛教思想」, 山上憶良(河出書房新社, 1973), 井村哲夫, 「憶良」思子等歌」序文の典據, 万葉 41號, 井村哲夫, 「人並に我もなれるを」, 万葉 109號 (1982.2), 神田喜一郎, 「万葉集の骨格となつた漢籍」, 万葉集大成 20. 등이다.

15) 山田孝雄, 「万葉集に佛教ありや」, 万葉集考叢 (寶文館, 1955).

市村 宏, 「万葉集と佛教」, 万葉集新論 (櫻楓社, 1969).

中西 進, 「相剋と迷妄-山上憶良をめぐつて」, 万葉史の研究 (櫻楓社, 1968).

16) 中西 進, 「相剋と迷妄-山上憶良をめぐつて」, p. 532.

難住歌>(권 제5, 804·805)에서 “序文에서 易集難排八大辛苦라든가 撥二毛之歎 등이라고 말하고 있고, 노래에서도 전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그 주제 중에는 불교적인 無常觀이 느껴지기도 하고 世間虛假唯佛是眞風の 厭離思想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지만 노래에 造形되어 있는 실체는, 적어도 그런 것은 아니다. 거기에는 불교의 구원도 隱遁에의 바람도 없다. 다만 육체의 쇠약, 애정의 退散에 대한, 구원도 절망도 없는 未練執着뿐이다.”¹⁸⁾고 하더라도 그것 또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불교사상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萬葉集』 전체 작품 속에서 살펴보았을 때는 불교적인 색채가 무척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다.

즉 『萬葉集』에는 현실집착적인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고 정토사상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가 당시 불교가 극락 왕생을 이상으로 하는 사후의 안락을 원하는 사상에는 아직 이르지 않고 있었기¹⁹⁾ 때문이든 일본인들의 사후에 대한 인식에서 기인하든 어쨌든 憶良의 작품에는 정토사상에 관한 편린이 보인다고 하는 것이다. 旅人の 아내의 죽음을 漢詩로 쓴 내용을 보면

愛河波浪已先滅
苦海煩惱亦無結
從來厭離此穢土
本願託生彼淨刹

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보면 지상을 예토로 보고 피안을 정토로 보고 정토에 살고자 회원하는 것이다. 이 정토에 살고자 회원하는 것이 憶良 자신이 아니라 죽은 旅人の 아내를 말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또 憶良이 <沈痾自哀文>과 <悲嘆俗道假合卽難易去難留詩一首并序>의 서에서 현세에서의 수명 장수를 회구하여 사상에 모순성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憶良의 작품에 정토왕생을 회구하는 安養에 대한 언급과 사상이 보인다는 것은 큰 특징이라고 하겠다. 大伴旅人

17) 井村哲夫, '憶良「思子等歌」의論', 日本文學研究資料叢書 萬葉集 1 (有精堂, 1980), p.174.

18) 高木市之助, '周邊の意味-憶良の場合-', 日本文學研究資料叢書 萬葉集 1 (有精堂, 1980), p.146.

19) 市村 宏: '萬葉集と佛教', 萬葉集新論 (櫻楓社, 1969), p.363.

의 作인 ‘大宰帥大伴卿讚酒歌十三首’ 중에

- この世にし 楽しくあらば 來む世には 蟲に鳥にも 吾はなりなむ(卷第三 三四 八)
- 生ける者 遂にも死ぬる ものあれば 今あるほどは 楽しくをあらな(卷第三 三四九)

고 한데서 극단적으로 볼 수 있는 일본인들의 현실집착성에서 무척 벗어나 있음을 알 수 있다. 憶良의 작품에 사상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불교 사상에 대한 철저한 인식 역시 결여되어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위에서 보았듯이 憶良의 작품에 불교에 대한 관심이 무척 두드러지고 安養에 대한 사상까지 엿볼 수 있다는 것은 그가 백제계 귀화인이었으므로 백제의 불교문화의 영향이 있었던 때문이라 생각된다. 백제 불교의 정토사상을 확인할 수 있는 문헌 자료는 거의 없지만 부여를 중심으로 한 백제 시대 사찰의 佛像을 보면 아미타불이 많음을 보아 미타사상이 분명히 백제 시대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또 신라 시대 것이긴 하지만 향가작품에는 <願往生歌>나 <祭亡妹歌> 등과 같이 미타세계를 회귀하고 오로지 그것을 위해 수도 정진하는 내용의 노래가 있음을 보더라도 한국은 죽음에 대한 인식이 일본과는 달랐던 까닭에 불교의 安養 사상을 일찍이 수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憶良이 백제계 귀화인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면 憶良의 작품에 나타나는 불교에 대한 관심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다. 또 그의 작품에 유교사상이 혼재하여 나타나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즉, 한국인들의 사상을 볼 때 정치에 나아가 공적인 생활에 임했을 때에는 정치원리로 주로 유교에 의존하였지만 개인적인 사적이고 종교적인 차원에서는 불교에 의존한 양면성을 지니고 있었음을 생각하면 憶良의 작품에 유교적인 것 불교적인 내용이 혼재한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3-3. 憶良과 유교사상

다음은 憶良의 유교사상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憶良은 「万葉集」 작가 중에서 또한 유교적인 이념을 노래한 작가로도 그 특성이 두드러진다. 부모와 처자에 대한 것을 소재로 한 작품이 많다는 것인데

대표적인 예를 들어 보기로 한다. 권 제5에 실려 있는 <令反感情歌一首并序>(5. 800-801)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漢文 序를 보면

或有人 知敬父母 忘於侍養 不顧妻子 輕於脫屣 自稱倍俗先生 意氣雖揚青雲之上 身體猶在塵俗之中 未驗修行得道之聖 盖是亡命山澤之民 所以指示三綱 更開五教 遺之以歌 令反其惑 歌曰

라고 하였다. 부모에게 불효하고 처자를 돌아보지 않는 자칭 倍俗先生이라는 자를 내세워, 山野에 放浪하는 이러한 백성을 三綱五教의 유교적인 윤리로 깨우쳐 그 마음을 바로 잡고자 노래를 짓는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노래에서도 보면

- 父母を見れば尊し 妻子供れば めぐしうつくし 世の中は かくぞことわり(後略) (卷第五 八〇〇)
- ひさかたの 天路は遠し なほなほに 家に歸りて 業をしまさに (卷第五 八〇一)

라고 하였다.

長歌를 보면 '부모를 보면 공경하고 처자를 보면 사랑스럽고 세상사는 이러한 것이 도리이므로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데 어찌 가정을 버리고 방랑하면서 가정을 돌보지 않는가' 하는 내용을 노래하고 있으며 短歌에서도 '집에 돌아가서 생업에 충실하라'고 매듭을 짓고 있다. 이것은 大久保廣行이

憶良이 伯耆守가 된 배경을 그곳이 일찍부터 대륙과 반도의 문화가 유입되던 곳이었으므로 그곳에서 문화·외교에 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憶良의 학식과 渡唐 경험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고 또 이곳에 부임된 상황은 유랑도망하는 유민이 많아 大化 이후의 공민제가 파괴되어 가는 것을 두려워한 조정이 백성의 유랑을 막기 위해 농업을 장려하고 부랑자는 부랑 지역에서 課役하게 하는 土斷法을 만들고 한 상황에서 울렁에 밝은 좋은 관리가 요청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²⁰⁾

20) 大久保廣行, '憶良考序說-筑前守以前-', 國語と國文學 第59卷 第11號(東京大學國語國文學會, 1982.11), p.76

고 논급한 것처럼 당시의 유랑민을 막고 농업을 장려하고자 한 官人으로서의 憶良의 입장을 연상시킨다. 그러나 憶良은 정작 伯耆守 시대에는 이러한 작품을 짓지 않고 筑前守로 있을 때에 지었던 것이며 또 만년에 <貧窮問答歌一首并短歌> (권 제5 893번가) 에서 가난에 시달리는 부모와 처자를 노래한 것으로 보아 부모에게 효도하고 처자를 아끼며 생업에 충실해야 한다는 유교적인 사상은 憶良의 의식 밑바닥에 항상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하였기에 <筑前國志賀白水郎歌十首>(16. 3860-3869) 중의 작품

荒雄らは 妻子の産業をば 思はずろ 年の八歳を 待てどままきず(16. 3865)

에서도 죽은 荒雄에게 그의 아내가 그리워하며 애타게 기다리고 있으므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처자의 産業(生業)을 돌아보지 않는다고 하여 나무라고 있다. 이것은 憶良이 남성의 가장으로서의 임무를 중시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런 점 역시 「万葉集」의 다른 작가들의 의식과는 무척 다름을 알 수 있다. 「万葉集」의 다른 작품에도 부모를 노래한 경우가 나타나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랑하는 사람을 고이 잘 길러 준 부모, 아니면 두 사람의 사랑을 간섭하여 방해하는 부모로 그려져 있다. 어느 쪽이든 남녀간의 사랑이 중심이 되고 부모는 부차적인 존재로 그려져 있을 뿐인 것이다. 憶良처럼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해야 한다는 유교적 실천윤리의 대상으로 노래한 작품은 없는 것이다.

또 아내를 노래한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하겠다. 「万葉集」의 대부분의 작품에서 아내를 노래할 때는 사랑의 대상 특히 육정적인 사랑의 대상으로 그리고 있다. 이러한 성격은 「万葉集」 뿐만이 아니라 일본 문학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것이며 따라서 일본 문학의 특성이 에로티시즘으로 설명되어지는 것과 상통하는 것이다.

그런데 憶良의 작품에서는 연정의 대상으로서의 아내의 이미지 보다는, <山上憶良臣罷宴歌一首>

憶良らは 今は罷らむ 子泣くらむ それその母も 吾を待つらむ (卷第三 三七番歌)

에서 보듯이 아이와 아내가 기다린다고 하지 않고 “아이와 그 아이의 어미도 나를 기다리고 있겠지요” 라고 하였다. 아내를 말함에 있어 아이를 매체로 하여 가정에 있어서 아이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더 중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令反感情歌一首并序>와 <貧窮問答歌一首并短歌>등에서도 보았듯이 아내가 독자적으로 憶良의 노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妻子’로 표현되어 남편과 더불어 가정을 꾸려나가는 가족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의 이미지가 부각되어 있다. 이는 「萬葉集」의 다른 相聞歌들에 나타나는 일본적인 아내의 이미지와는 크게 다름을 알 수 있다. 憶良의 작품은 남녀간의 사랑보다는 유교적 질서 안에서 남편, 아내, 자식이 해야 할 역할을 더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憶良이 相聞의 노래를 지을 수 없었고 다만 유교적인 윤리의 틀 속에서 그 역할을 다하는 가부장과 그에 상응하는 조강지처로서의 아내의 이미지밖에 노래할 수 없었던 것²¹⁾도 역시 그가 백제로부터 일본에 귀화한 그의 본래적인 성격 때문이 아니었을까 한다. 한국과 중국의 작품에는 남녀간의 사랑을 내용으로 한 것이 적음은 바로 유교적 사상의 영향이 강했음을 말하는 것이라 하겠다.

憶良은 「萬葉集」속에서 또 드물게 자식에 대한 사랑을 강하게 노래하고 있다. 위의 <山上憶良臣能宴歌一首>도 그러하거나와 <思子等歌一首并序>도 마찬가지이다. “釋迦가 중생을 사랑하기를 그의 아들 羅候羅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하였다. 大聖人도 그러하였는데 하물며 중생들이 자식을 사랑하지 않겠는가 하고” 서문을 쓰고 난 뒤에

○瓜食めば 子ども思ほゆ 栗食めば まして憊はゆ 何處より 來りしものぞ ま
なかいに もとなかかりて やすいしなさぬ (권 제5 802)

○銀も 金も玉も 何せむに まされる寶 子にしかめやも(권 제5 803)

라고 노래하고 있다. 연회를 파할 때, 우는 아이가 생각나서 빨리 집에 돌아가야 한다고 하였고, 외나 밤을 먹으면 생각나는 아이, 금은 보배보다도 더 귀하

21) 憶良의 작품 중에서 七夕歌에는 다른 작가들과 마찬가지로 견우 직녀의 애절한 사랑을 노래하여 다른 작가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공적인 場에서 불리워졌고 七夕 전설 내용을 중심으로 부르게 되므로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된다.

고 사랑스러운 아이를 노래한 작가는 「万葉集」에는 없는 것이다. 이것은 남성이 공적인 자리에서도 집안의 아이 생각이나 하는 것으로만은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를 다해야 하는 것처럼, 부모는 또한 가장으로서 처자의 산업을 알뜰히 보살필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三綱五教가 실천되어야만 인간이 인간다운 도리를 다할 수 있고 가정이 화목하고 나아가서 나라가 잘 다스려질 수 있다고 하는 유교적인 의식이 바탕이 되었던 것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3-4. 憶良과 자연

憶良의 작품에는 자연을 노래한 것이 거의 없다. 「万葉集」의 작품이 주로 남녀간의 사랑을 노래한 相聞, 그리고 그것을 자연에 의탁하거나 자연 그 자체를 노래한 것이 많음에 비해 憶良에게는 자연을 노래한 작품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권 제8에 겨우 <山上臣憶良詠秋野花歌二首>라 하여 가을 들판에 핀 꽃을 노래한 작품이 있다.

○秋の野に咲きたる花を 指折り かき數ふれば 七種の花(권 제8. 1537)

○萩の花 尾花葛花 瞿麥の花 女郎花 また藤袴 朝顔の花(권 제8. 1538)

위의 작품을 보면 앞의 短歌에서는 꽃에 대한 작자의 시적 감정 보다는 단순히 “가을 들판에 핀 꽃을 손가락을 꼽아 가며 세어 보니 7종류의 꽃이다”고 하였고 그 다음 작품에서는 그 7종류의 꽃을 열거하고 있을 뿐이다. 가을의 풀꽃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감정을 노래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土屋文明가 憶良의 七夕歌를 논하면서

憶良은 七夕이라고 하는 대륙 취미를 일본에 도입함에 있어서 대륙 지역이 되지 않도록 노력했다고 보아지는 점이 적지 않다. 1520번의 長歌등은 記紀歌謠 중의 어구를 襲用하고, 가능한 한 일본색을 내려고 한 흔적이 확실히 나타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성공했는가 어떤가. 결론을 먼저 말하면 그것은 전연 형식에 그치고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詩歌 제작의 근본을 잘못 알고 있었으므로 어찌할 수 없었던 것일까. 문학상에서는 외국문화와 자국감정의 融合이 어려움을 일본 최초의 사례로 보이고 있는 것으로까지 생각된다.²²⁾

22) 土屋文明, 「山上憶良」, 文藝讀本 万葉集 (河出書房新社, 1981), p.82.

라고 한 논급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憶良은 일본식의 和歌를 지음에 있어 감성 세계를 표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한다.²³⁾ 즉 세심한 감수성을 바탕으로 하여 그것을 일본어로 축약하여 표현하여야 하는 것이 이국인인 憶良에게는 무척 어려웠던 것이 아닐까. 그러하였기에 憶良은 그의 몸매인 사상성과 그의 한학 능력을 바탕으로 하여 자신의 작품에 불교이든 유교이든 사상성을 담은 내용을 주로 한문으로 설명하는 한문 서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 사상의 내용에 따라 한시를 짓거나, 아니면 和歌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감수성에 바탕하여 「萬葉集」의 일반적인 작품 성향인 연정이나 자연을 노래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사상성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러한 그의 출자로 인한 作歌의 한계성 때문이 아닐까 한다.

그의 작품이 만년에 치중되어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들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沈痾自哀文>을 보면 오로지 한문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라고 할 수 있다.

또 憶良이 표현에 있어서는 土屋文明이

그의 작품 중에는 고민요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지는 표현과 成句가 적지 않고 그 점은 人歷와 비슷하지만 人歷의 것은 古句 속에도 자신의 시적 흥분이 부여되어 있는데 비해 憶良의 경우는 오히려 지식으로서 도입되어 있어 感銘이라는 점에서 보면 전혀 다른 방향의 것처럼 되어 있다.²⁴⁾

라고 한 것이나 星野五彦이

이들 귀화인은 표면적으로는 토착화에 힘쓰며 和風化에 애썼지만 정신면에 있어서는 무리가 생겼던 것이다. 그 때문에 憶良같은 자조차 先蹤 작품에서 많이 배우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며 여기에 憶良을 비롯한 귀화계인의 類歌, 즉 모방의 비율이 높은 하나의 원인이 된 점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類歌의 기반이 된 것이 末詳歌를 주로 하고 있는 점에 그 노래의 공시성을 볼 수 있음과 동시에 作歌에의 수단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²⁵⁾

23) 大久保廣行은 '憶良考序說-筑前守以前-'에서 "懷風藻에는 不比等 외에 山田三方·紀男人 등 侍講者를 포함한 6인의 칠석시가 보이지만 憶良의 작품은 없다. 역시 憶良은 歌人으로서 평가되고 있었던 것이다."(p.77)고 하여 憶良을 和歌 작자로서 평가를 하고 있다.

24) 土屋文明, 앞의 논문, p.81.

25) 星野五彦, 앞의 논문, p.36

고 하였듯이 표현에 있어서는 일본의 古民謠類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상면에서는 久松潛一가 말하고 있듯이 “외래사상을 노래한 歌人으로서 大伴旅人을 들 수 있는데 旅人の 노장 사상은 旅人の 생활에 밀착하여 있지 않은데 비해 憶良의 유교사상은 그 생활과 인품에 밀착하여 있다. 借着의 사상이 아니다.”²⁶⁾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憶良의 특징은 바로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그가 귀화인이었으므로 시의 형식에 있어서는 일본 재래의 표현을 모방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내용에 있어서는 유불과 같은, 그의 몸매 배인 사상성을 노래하는 것이 용이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일본의 「万葉集」의 다른 작가의 경우와는 반대되는 현상인데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憶良은 작품론에서도 그가 귀화임이 확실히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4. 憶良이 「万葉集」과 일본 문학에 미친 영향

이상에서 山上憶良의 작품들을 「万葉集」의 전체 작품들의 성격과 대비하여 살펴봄으로써 그의 작품의 이질적인 성격은 바로 그가 백제로부터 일본에 귀화한 그의 출자와 관련이 있음을 살펴 보았다. 그러면 憶良의 이러한 작품적 성격은 「万葉集」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불교사상의 영향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한다. 「万葉集」 제4기의 대표적인 歌人인 大伴家持의 작품을 보면

- <臥病悲無常欲修道作歌二首>
- うつせみは 數無き身なり 山川の 清けき見つつ 道を尋ねな(卷20 4468)
- 渡る日の 影に競ひて 尋ねてな 清きその道 またも遇はむ爲(卷20 4469)
- <願壽作歌一首>
- 泡沫なす 假れる身ぞとは 知れれども なほし願ひつ 千歳の命を(卷20 4470)

이라고 하였다. 이를 보면 家持는 현실에 대한 강한 집착을 느끼면서 불교의 내세도 다소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일본 상대 말기 지식인들에게

26) 久松潛一, '山上憶良は歸化人か', 文藝讀本 万葉集 (河出書房新社, 1981), p.63.

불교가 다소 육화되어 가는 과정을 엿볼 수 있다. 또 그의 <悲世間無常歌一首并短歌>

天地の遠き始よ 世の中は 常無きものと 語り繼ぎながらへ來れ 天の原 ふり
 放け見れば 照る月も 滿ち缺けしけり あしひきの 山の木末も 春されば 花
 咲きにほひ 秋づけは 露霜負ひて 風交り もみち散りけり うつせみも かくの
 みならし 紅の色も 移ろひ ぬばたまの 黒髮變り 朝の笑 夕變らひ 吹く風の
 見えぬが如く 行く水の 止らぬ如く 常も無く 移ろふ見れば にはたづみ 流る
 る涙 止みかねつも(卷第十九 四一六〇番歌)

에서는 무상감이 문학적 서정으로서의 무상감에서 벗어나 다소 불교적인 색채를 띠게 되어 종교적 차원으로 육화되어 가는 과정을 엿볼 수 있다. 大伴家持는 大伴旅人の 아들로 『萬葉集』 제 4기의 대표적인 歌人이다. 憶良과 旅人は九州에서 서로 자극을 주며 창작에 임하였고 그때 주고 받은 憶良의 작품이 大伴家持에 있었을 것이므로 家持가 그것을 보고 영향을 받았으리라는 것은 일찍부터 지적된 사실인데²⁷⁾ 家持 작품에 나타난 불교적인 무상감과 정토사상에의 편린은 憶良의 작품들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上代 『萬葉集』의 憶良-家持로 이어지는 불교사상에의 구체적인 관심과 정토사상이 平安時代·中世時代に 들어서면 和歌集에 釋教歌 部立이 들어 가게 되는 것도 그 연장 선상에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 전개 과정을 보면 『古今集』 『後撰集』에서는 '哀傷'의 部立 속에 불교적인 색채의 노래가 들어 있으나 『拾遺集』의 '哀傷'에 이르면 釋教歌가 의식적으로 수록되게 된다.

『古今和歌六帖』에 이르면 좀 더 구체화 되어 '佛事'의 項이 들어 있으며 平安中期에는 法文이나 敎理를 노래한 和歌가 융성하게 된다. 選子內親王의 『發心和歌集』처럼 전체가 釋教歌로 이루어진 私家集도 나타날 정도로 이른 다. 『後拾遺集』에 이르면 卷二十의 '雜六' 속에 '神祇'와 함께 '釋教'의 小部立이 勅撰集으로서 처음으로 설정될 정도로 釋教歌는 和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新古今和歌集』과 그 이후의 十三代集은 모두 釋教歌의 部立이

27) 今井福治郎, 憶良의 作品의 成立と傳來, 上代文學 第8호 (1957. 6), pp.39-40.

설정되어 이때에는 天皇·貴族·女性할 것 없이 和歌에는 불교사상의 영향이 농후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부모에 대한 효와 처자에 대한 생각에서도 그 영향관계를 찾을 수 있다.

즉 권 제18에 실려 있는 <教諭史生尾張少昨歌一首 并短歌>를 보면 다음과 같다.

七出例云 但犯一條即合出之 無七出車取棄者徒一年半 三不去云 雖犯七出不合棄之 違者杖一百 唯犯奸惡疾得棄之 兩妻例云 有妻更娶者徒一年 女家杖一百離之 詔書云 懲賜義夫節婦 謹案 先件數條 建法之基 化道之源也 然則義夫之道 情存無別 一家同財 豈有忘舊愛新之志哉 所以綴作數行之歌 令悔棄舊之惑 其詞曰

大汝 少彦名の 神代より 云ひ繼ぎけらく 父母を 見れば尊く 妻子見れば かなしくめぐし うつせみの 世の理と かく様に 云ひけるものを 世の人の 立つる言立(後略)(18. 4106)

위에서 “부모를 보면 존경스럽고 처자를 보면 사랑스럽다”고 한 표현은 바로 憶良의 <令反感情歌一首并序>의 내용을 모방한 것임을 금방 알 수 있다. 서문에서 노래의 바탕이 되는 사상을 한문으로 서를 붙인 형식도 같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憶良에게 있어서는 부모·처·자에 대한 가장으로서의 태도가 어느 쪽에도 편중되지 않고 유교사상이 자연스럽게 표출되고 있음에 비해 家持의 경우는 長歌의 앞부분에서는 憶良의 노래를 모방하여 부모에 대한 효, 처자에 대한 사랑을 언급하고 있지만 서문에서는 주로 아내와 관련된 법령들을 주로 인용하고 있어 유교사상을 인용함이 家持의 사상과 밀착되지 못하고 무언가 어색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長歌의 뒷부분에서도 보면 아내가 자신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遊女에게 미혹되어 있는 가장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그리고 短歌에서도 “고향에서는 아내가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겠지”, “동네 사람들 보기도 창피스럽네. 遊女에 미혹되어 있는 그대가 관서에 출근하는 뒷모습은”이라고 하였고, “붉은 염료는 색이 바래기 쉽다네. 수수한 도토리도 염색한 익숙한 옷에 미칠 것인가”라고 하여 유녀를 붉은 색의 물

감, 집에 있는 아내를 도토리로 염색한 수수하고, 입어 익숙한 옷으로 비유하였다.

이처럼 家持의 작품을 보면 「萬葉集」의 여느 작가들처럼 아내를 중심으로 그것도 유녀와 대비하여 성적인 내용을 담으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은 「萬葉集」의 일반적 특성에서 벗어남이 없다고 하겠다. 그러나 서문과 장가에서 보았듯이 어색하기도 하고 앞 뒤 내용에 일관성이 없기는 하지만 家持가 憶良의 작품을 모방하여 한문 서문을 붙이고 유교적인 색채의 노래를 하려고 하였던 것은 家持가 憶良의 작품을 일본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이국적인 큰 매력을 지니는 것으로 느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그러나 憶良이 작품의 소재로 백한 불교·유교사상에서는 무리가 없었지만, 和歌 표현에서는 무리가 있었던 것과는 반대로 家持는 표현에서는 무리가 없었지만 憶良의 노래에 보이는 유교사상과 和歌의 소재로 소화시키는 데는 무리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보더라도 憶良의 이질적인 요소는 바로 대륙적인 것, 즉 백제 귀화인임을 충분히 다시 입증하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憶良의 사색하는 思想歌人的인 성격은, 大作家持의 작품에 이런 한계는 있다고 하더라도 영향을 강하게 미치고 있고 이러한 성격은 또 다시 중고시대의 和歌의 성격이 상대와는 달리 사고와 논리 이성에 치우쳐 가는데도 그 한 원인을 제공했던 것이 아닐까 한다.

Ⅲ. 結 論

일본 「萬葉集」 속의 한국 문학의 흔적을 밝혀내어 이를 통하여 자료가 영성한 우리 고전문학의 부족함을 보완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고 나아가 한일 문학 비교연구를 위한 기반을 넓히자는 의도하에 「萬葉集」 제3기의 대표적 작가인 山上憶良을 중심으로 하여 그의 작품세계의 특성을 「萬葉集」 전체 작품의 성격과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憶良이 백제로부터 일본에 귀화한 한인계 작가임을 논증하여 보았다.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山上憶良의 작품에는 구체적으로 죽음을 노래한 작품이 많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노래한 작품에 '死'라는 글자를 사용하고 있다. 「萬葉集」의 '死'는

주로 相聞歌에서 상대방에 대한 상사의 감정을 강조하는 관념적이고 상투적인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고, 정작 죽음을 노래하는 挽歌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일본인들이 죽음을 부정, 금기시한 것과 관련이 되겠는데 憶良이 죽음 자체를 노래한 작품에 '死'를 아무 거리낌없이 사용한 것은 그가 백제계 귀화인이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둘째, 「萬葉集」에는 불교적인 색채의 작품이 적는데 憶良의 작품을 보면 많은 불교 경전을 인용하고 있어 불교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토사상에 대한 편린까지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불교와 정토사상에 대한 관심 역시 그가 백제 불교의 영향하에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보았다.

셋째, 憶良의 작품을 보면 부모·처·자에 대한 가장으로서의 의무가 강하게 나타나 있다. 「萬葉集」에서 부모를 노래한 경우는 相聞과 관련하여 나타날 뿐이며 공경하고 효도를 다해야 하는 대상으로는 그려져 있지 않다. 아내도 연정의 대상으로서의 아내가 주로 노래되고 있음에 비해 憶良은 아이의 어머니,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아내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어 「萬葉集」 다른 작품들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작품적 특성도 그가 한인계임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넷째, 憶良의 작품에는 자연을 노래한 것이 거의 없다는 것도 하나의 큰 특징이다. 들꽃을 노래한 短歌가 2수 있을 뿐인데 이것도 꽃에 대한 작가의 시적 감흥을 노래한 것이 아니고 꽃을 세어보고 그 종류를 나열한 정도에 불과하다. 이처럼 憶良이 자연을 노래할 수 없었던 것은 和歌적인 표현이 그에게는 자연스럽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며 이것은 그가 백제로부터의 귀화인계임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相聞歌는 지을 수 없었고 위에서 말한 불교·유교사상과 같은 사상성이 강한 작품과 漢文序, 漢詩를 즐겨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보았다.

다섯째, 憶良의 이러한 한국적인 요소는 「萬葉集」 제4기의 대표적인 歌人인 大伴家持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大伴家持의 이러한 성격은 종교문학에 이어짐을 볼 때 憶良이 「萬葉集」과 일본문학에 미친 영향을 실로 크다고 할 수 있다.